

광주·전남 경기회복 주춤?

자금사정 악화·선행지수 13개월만에 하락 기업들 내수·수출경기 낙관 ... 기대감 여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해 온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상승세가 조정을 받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선데다 기업 가동의 동력원인 자금사정 전망이 악화되는 추세이고, 산업생산 역시 감소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기업자금사정 '호름' = 3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매출액 20억원 이상 533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2010년 2월 광주·전남지역 자금사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중 광주·전남 지역 기업의 자금사정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84포인트로 전달(86)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제조업(86)은 전달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제조업(86→83)은 3포인트 하락했다.

여기에서 3월 자금사정 전망BSI(88→86)도 제조업(88→85)과 비제조업(88→86) 모두 하락하며 전체적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내려갔다. 여수상공회의소의 2·4분기 경기전

망에서도 BSI가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도는 90으로 나타나 '경기 부진'을 예고했다. 특히 지역 핵심산업인 석유화학업의 경우 BSI가 1·4분기 실적치인 115보다 크게 하락한 92로 조사돼 타격이 클 전망이다.

◇광공업 생산 감소세 = 광공업 생산도 주춤하고 있다. 1월 중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자동차(85.4%), 자동차 타이어 및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83.1%)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호전(64.0%)됐으나, 현 경기 추이를 반영하는 전월비는 5.5% 감소했다.

전남지역도 1차 금속(51.6%), 고무 및 플라스틱(58.1%) 등의 상승세로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24.5%나 증가했지만 전월비는 5.9%가 줄었다.

◇경기선행지수 13개월만에 하락세 = 3월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경기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전달 대비 0.3%포인트 떨어지면서 작년 1월 이후 12개월 간의 상승행진을 마감했다.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는 작년 7월 2.8%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7월 2.



1%포인트, 8월 1.2%포인트, 9월 0.8%포인트, 10월 0.7%포인트, 11월 1.0%포인트, 12월 0.3%포인트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지역 제조업체 경기회복 '기대' = 광주상의(회장 박흥석)가 3일 발표한 2/4분기 기업 경기전망'에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114로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116)과 대기업 모두 기준치를 상회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은 내수(112), 수출(106), 생산설비 가동률(114) 등에서 호조를 예상했다. 대기업도 수출(122), 내수(111), 생산설비 가동률(110) 부문에서 경기를 낙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금남의 벽' 깬 백화점 화장품매장 꽃남들

美를 가꾸는 男자 女心 사로잡다



◀ 피부컨설턴트 김규요씨

▶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성수씨

고정관념 깨고 톡톡튀는 감각

여성 고객들 매력발산 도와

장술만 잡으면 자신감이 넘친다. 까다로운 여성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여성들이 매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남성의 시선'에서 메이크업을 도와주는 것이다.

김씨는 "남자친구, 오빠, 남동생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을 하면 고객들도 좋아한다"면서 또 "화장에 익숙한 여성보다 정교하고 섬세하게 화장하는 것은 남성 아티스트들에게 장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기까지 필요했던 것은 인내의 시간이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며, 대학에서 피부미용까지 전공했지만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남성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원하는 곳은 없었다.

꿈을 접어둔 채 전자제품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지난해 초 남성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뽑는다는 모집공고를 보고 용기를 내 도전을 한 결과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전국 백화점을 순회하면서 메이크업 이벤트 쇼도 해보고 경력을 충분히 쌓아 메이크업 전문숍을 여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김규요(25)씨는 백화점 2층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에스티 로더'에서 피부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다. 피부컨설턴트란 고객의 피부타입과 취향에 맞게 제품을 선택하고 판매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업무를 시작하지 불과 한 달 밖에 안됐지만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 상담이나 간단한 메이크업 서비스도 하면서 여성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씨가 퇴근 후에도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화장품 관련 전문지식을 쌓고 지인들을 상대로 고객 응대 연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는 여성 고객들의 눈높이 맞는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제품도 직접 쓰고 있다.

김씨는 "단골 손님들이 늘 때 일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낀다"면서 "에스티 로더 여사처럼 제 이름 건 화장품 브랜드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남유럽 불안... 광주·전남 주식투자 위축

그리스,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PiIGS)의 재정위기가 광주·전남 지역 주식투자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소장 김정원)가 3일 발표한 2월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5억7천33만

주로 전달(7억5천252만주)보다 1억8천220만주가 줄어 24.21%의 감소율을 보였다.

거래대금도 2조5천737억원으로 전달(4조1천827억원)보다 1조6천91억원(34.87%) 줄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

에서 에이치비에너지(3천837억6천269만주), 한솔홈데코(1천783억900만주), 삼양옵틱스(1천485억1천197만주), 광명전기(1천469억3천594만주), 한신기계(1천109억6천485만주) 등의 순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사이 워킹슈즈 'MBT' 할인 판매

국내에서 '마사이 워킹 슈즈'로 잘 알려진 MBT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MBT 코리아사는 3일 "전세계 38개국 고객 1천만명 돌파를 기념해 제품에 따라 신발 가격을 3만~5만원씩 낮췄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4만7천원 하던 'Shadow'와 'Night' 제품이 5만원 할인된 29

만7천원에 판매된다.

"365일 연중상시 중고 MBT 보상행사"도 실시된다. 신었던 MBT를 전국 140개 마사이 워킹센터로 가져와 새 제품을 구입하면 5만원의 쿠폰을 준다. 신발 보상판매는 업계에서 처음이라고 사측은 설명했다. 또 MBT가 뛰어난 전신 운동 효과를 유발하는 강점이 있어 마



사이 층이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MBT 코리아사 관계자는 "글로벌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MBT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설 특수' 백화점 2월 매출 신장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매출이 지난 달 설 선물세트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5%나 상승했다.

명절이 끼여있어 영업일이 작년보다 하루 적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명절용 선물

이 잘 팔려 실적이 상승했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지난달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8% 가량 증가했다. 한우갈비세트가 280%나 뛰었으며, 건강식품과 주류 약 25%, 정육 약 18%가 상승해 명절 선물세트가 매출을 끌어올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光銀 50억 한도 'e-모아 인터넷예금' 출시

광주은행이 12일까지 총 50억원 한도 'e-모아 인터넷공동예금'을 한시 판매한다.

'e-모아 인터넷공동예금'은 고객들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모집기간 동안 함께 예금을 가입하고, 모집금액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온라인 전용예금이다.

이 상품은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

능하고, 모집금액 단위에 따라 최고 연 4.75%의 고금리가 확정된다. 이는 올초 은행권의 특판금리에 버금간다.

이번 인터넷공동예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예금가입 고객은 창구보다 0.65% 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3천만원 이상은 최고 4.75%까지 금리가 적용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